

〈이강철〉

〈손영민〉

〈신용운〉

# No. 19 호랑이 핵심 계보 잇는다

**언더핸드 상징... 이강철→신용운→손영민→신용운 “꿈의 배번 만들것”**

백넘버 19번이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 최대 관심번호가 되고 있다.

스토브리그는 백넘버를 놓고 선수들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다. 성적이 좋지 않아 새출발을 다짐하며 백넘버를 바꾸는 선수가 있고, 군제대 등으로 새로 합류하는 선수들을 위한 백넘버 조정도 이뤄진다. KIA에서 19번은 ‘잠수함’ 투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번호다.

‘원조 잠수함’ 이강철 투수 코치는 1989년 19번을 달고 프로야구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5년 마운드에 마지막 입맞춤을 할때도 그의 뒤에는 19번이 있었다. 영구결번이 되지 못한 19번은 이후 또 다른 잠수함 신용운에게 물려졌다.

이강철 코치를 우상으로 생각했던 신용운은 전주고 재학시절 19번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했었다. 2002년 입단 당시 49번을 배정받았던 신용운은 이 코치가 은퇴한 다음해인 2006년 다시 19번과 인연을 맺었다.

신용운이 2007 시즌이 끝나고 군입대를 선택하면서 주인을 잃었던 19번은 2008년 손영민의 품에 안겨 잠수함 계보가 이어졌다.

손영민은 2008년 3.66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2패 1세이브 5홀드를 기록했다. 3년차 투수가 기록한 성적으로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강철-신용운이라는 경쟁한 선배들의 명

성탄에 19번을 단 손영민은 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험 미숙과 들쭉날쭉한 제구로 마운드를 제압하지 못했던 손영민은 올 시즌 투구폼 수정과 싱커의 완벽 장착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 과감한 승부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손영민은 올 시즌 팬들로부터 ‘손강철’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손영민은 지난 남해 마무리 훈련때부터 21번을 달고 훈련을 했다. 신용운이 제대를 하면 번호를 반납하기로 약속했던터라 19번과 작별한 것이다.

수제자이자 후배이기도 한 두 선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강철 코치는 “성적이 좋지 못하면 19번을 내놓으라”고 신용운에게 엄포를 놓았다.

19번으로 돌아오는 신용운은 백넘버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찰청 야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끝낸 신용운은 15일 처음으로 경기장을 찾아 코칭스태프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곧장 짐을 꾸려 필리핀으로 떠났다. 신용운은 고우석·문현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기 위해 16일부터 자비를 들여 필리핀 훈련을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곽정철 연봉 180% 인상

### 7천만원에 재계약

KIA 타이거즈의 곽정철(사진)이 2천5백만원에서 180% 인상된 7천만원에 연봉도장을 찍었다.

KIA는 16일 곽정철, 한기주 등 13명과 재계약을 마무리 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에서 활약한 곽정철은 180% 인상된 금액에 계약을 끝내며 신용운·이상화·안치홍이 기록한 200%의 인상률에 이어 역대 팀 내에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기주는 1억2천만원에서 11.7% 인상된 1억3천4백만원에 합의했다.

전태현·고우석·정용운·양동일(이상 투수) 신종길(외야수) 등 7명의 연봉도 소폭 오르면서 이날 재계약 인상은 7명이



다. 문현정과 진민호(이상 투수)·김형철(내야수)는 동결됐다.

한편 부상으로 올 시즌 출장하지 못한 제종범은 7천만원에서 14.3% 삭감된 6천만원에 재계약했다. 외야수 김경연도 3백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에 계약했고, 이범석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된 4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홍성흔·양궁 서정희 페어플레이상

### 스키점프·女축구대표팀 단체상

프로야구 선수 홍성흔(32·롯데·사진)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서정희(24·청원군청)가 제3회 한국페어플레이상을 받는다.

한국 페어플레이위원회(위원장 조정원)는 16일 남녀 개인 수상자를 비롯한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림픽 운동의 하나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개인과 사회의 생활 철학으로 확산하고 실천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발족한 한국 페어플레이위원회는 2007년부터 승패에 상관없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남녀 개인 및 단체에 상을 주고 있다.

박용택(LG·타율 0.372)과 치열한 타격왕 경쟁을 벌였던 홍성흔은 1리차로 아깝게 수위 타자를 놓쳤지만 타율을 관리하기보다



막판까지 투수들과 최전선을 다해 정면승부를 벌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인정받아 남자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서정희는 지난 9월 울산에서 열린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취약종목인 컴파운드(양 끝에 도르레가 달린 활)에서 맹활약, 값진 은메달을 일궜다.

적박한 환경을 타고 지난 2월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을 휩쓴 스키점프 국가대표팀과 7월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쥔 여자축구 대표팀도 각각 남녀 단체상을 받는다.

심판 판정에 단 한번도 항의하지 않고 선수들에게도 심판 판정에 복종하라고 가르친 김호곤 프로축구 울산 현대 감독은 특별상을 받고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인 다니엘학교는 특별상 단체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 남자탁구 기대주 정영식

### 세계주니어선수권 銅 3

남자 탁구 기대주 정영식(부천 중원고)이 2009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3개로 대회를 마쳤다.

정영식은 16일(한국시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디 인디아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복식 준결승에서 김민석(천안 중앙고)과 호

흡을 맞춘지만 스웨덴의 크리스티안 칼슨-마티아스 오베르스요 듀오에 세트점 끝까지 3-4(11-9 7-11 11-5 6-11 11-8 6-11 7-11)로 역전패했다.

또 혼합복식에서 김민희(대전 호수돈여고)와 파트너로 나선 정영식은 4강 상대인 대만의 창순홍-리이준 조에 0-4로 무릎 꿇었다. 이로써 정영식은 단체전에 이어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모두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단식에선 김민석과 김민희가 중국의 벽에 막혀 8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 ‘산타’ 위성미...장흥에 1억기부

### 21일 자선행사... 소년소녀 가장 초청 선물도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감격스러운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값을 한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가 한국에서 자선행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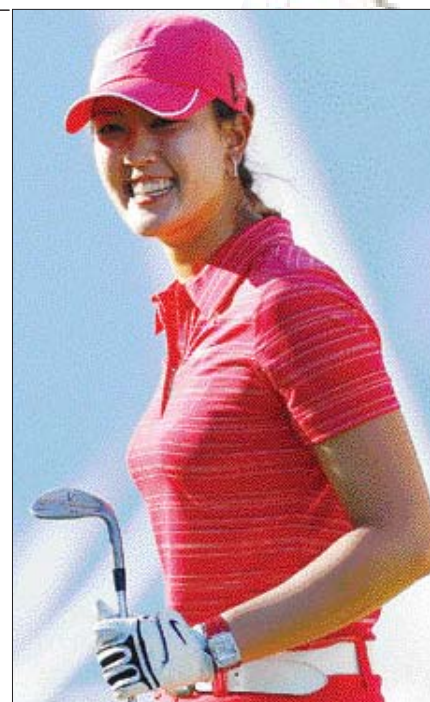
위성미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7층 아동매장에서 ‘소년 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소망’ 행사를

진행한다. 위성미는 이번 행사에 장흥군 소년, 소녀 가장 9명을 초청해 쇼핑을 같이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행사와 더불어 위성미는 팬사인회와 함께 사랑의 기부금 1억원도 전달한다. 기부금은 장흥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

달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돕는데 쓰인다.

지난 해 12월 벼세한 한국 최초의 항공학 박사이자 할아버지인 고 위상규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일을 맞아 지난 14일 귀국한 위성미는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日서 보배된 송보배

### JLPGA투어 2009 신인왕



송보배(23·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2009시즌 신인왕에 올랐다.

송보배는 2009시즌 7천292만원을 벌며 상금 랭킹 7위에 올랐고 신인 가운데는 가장 많은 상금을 받아 신인왕 수상자로 결정됐다. 2007년부터 일본에서 활약해온 송보배는 그간 비회원 자격으로 대회에 나서다 올해 회원 자격을 얻어 신인왕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송보배는 올해 10월 일본여자오픈과 11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겸한 미즈노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달 초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일 대회전에서는 최우수선수(MVP)에 뽑히기도 했다. 한국 선수가 일본투어에서 신인왕에 오른 것은 1994년 고우선(45)을 시작으로 1998년 한희원(31.월라코리아), 2001년 이지희(30), 2006년 전미정(27·이상 진로재팬)에 이어 송보배가 다섯 번째다. 한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따르면 2010년 일본 투어에서 될 자격을 가진 한국 선수는 신지애(21·미래에셋), 박민비(21·SK텔레콤), 안선주(22·하이마트) 등 20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nt.com

본점 062-227-9940  
 송정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여산점 063-851-2422